



# In depth

##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Publication date: 26 Nov 2021

GX In depth INT2021-11

### ESG 문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Key points

기후 변화의 영향은 투자자와 규제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문제입니다. 이번 In depth에서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문제의 영향을 고려하며 특히 기후 변화가 IFRS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둡니다.

#### 목차

1. 소개
2. 파리 연계(Paris Aligned) 재무제표 및 가정의 일관성
3. 금융 상품
  - 3.1 금융상품: 그린론(Green Loans) 회계
  - 3.2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 3.3 금융상품: 공시
  - 3.4 공정가치 측정
  - 3.5 보험 계약
4. 비금융 자산 및 부채
  - 4.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4.2 기타 비금융자산: 회수가능성 관련 고려사항
  - 4.3 총당부채 및 우발부채
5. 배출권 거래 제도
6. 계속기업 가정을 포함한 판단 및 가정에 대한 공시

## 1. 소개

기후 변화의 영향은 투자자와 규제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문제입니다. 위험에는 두 가지 광범위한 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각한 기상 현상 및 기온 상승의 영향과 같은 기후 변화의 물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 위험입니다. 물리적 영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과도기적 영향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정책 변화와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의 경제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과도기적 위험과 관련하여 법률 및 정책 변경의 형태로 '하향식' 영향과 저공해 또는 무공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의 '상향식' 이동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IASB는 기후 관련 문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 IFRS 요구사항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자료로 '기후 관련 문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교육 자료는 IASB 위원인 Nick Anderson이 2019년 11월에 이 주제에 대해 쓴 기사를 보완합니다.

IASB의 교육 자료에는 IFRS가 기후 관련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IFRS를 적용할 때 전체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이러한 문제의 영향이 중요한 경우 기후 관련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회사에 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를 누락, 왜곡 표시 또는 모호하게 하는 경우 정보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후 관련 문제를 어떻게 고려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경영진이 내린 가장 중요한 판단 및 추정과 관련하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In depth에서는 IASB 교육 자료의 영역과 알아야 할 몇 가지 다른 중요한 영역을 다룹니다. 간행물에는 교육 자료에서 공유되는 개념을 설명하는 몇 가지 유용한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n depth에서 다루는 영역이 새로운 IFRS 요구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IFRS의 기존 요구사항을 재무제표에 통합하기 위한 기초로서 IFRS의 기존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In depth에는 ESG의 재무 보고 의미와 특히 관련이 있는 회계 매뉴얼의 특정 FAQ 및 예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주제 영역과 관련된 추가 지침은 회계 매뉴얼의 관련 장을 참조하십시오.

## 2. 파리 연계(Paris Aligned) 재무제표 및 가정의 일관성

2020년 파리 협정은 190개 국가와 유럽 연합이 서명했으며 온실 가스(GHG) 배출량과 그에 따른 기후 변화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파리 협정을 채택했으며 2020년까지 관련 국가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일부로 GHG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도 제출했습니다. NDC에는 일반적으로 늦어도 2025년과 2030년에 대한 중간 목표와 함께 2050년까지 순 제로 GHG 배출 목표가 포함됩니다.

각 국가들은 NDC를 충족하기에 충분하거나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GHG 감소와 관련된 세부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의 특수성과 기업에 대한 예상되는 영향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Paris Aligned'는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하도록 설계된 수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국가가 서명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데, 기업의 재무제표가 'Paris Aligned'인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발생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고려하는 항목에 따라 IFRS에서 요구하는 측정기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Paris Aligned' 계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항목의 인식 및 측정은 다른 항목보다 파리가정에 더 밀접하게 정렬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IFRS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기업들은 기후관련 문제에 대한 재무 및 비재무의 공시, 기후 관련 위험의 고려사항 및 영향, 기후 관련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과 관련한 중요한 공시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PwC 지침:

- **FAQ 1 - 회사가 IFRS 재무제표에서 각 회계처리항목이 'Paris Aligned'라고 진술할 수 있습니까?**

파리협정은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개별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신의 회계처리항목이 'Paris Aligned'인지 묻는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질문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다른 기준은 다른 추정의 방법을 요구하게 되고, 파리의 가정(Paris Assumptions)이 다르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공정가치 측정은 기업이 시장참여자 가정의 사용을 최대화하도록 요구합니다. 관측가능한 시장의 투입변수는 이미 파리 협정의 예상되는 영향이 고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투입변수가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면, 기업은 일반적으로 Paris Aligned 요구사항에 따라 그러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추가로 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IFRS의 각 기준서는 기업이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가장 좋은 추정치는 단일 점 추정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확률 가중 평균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기후 영향이 이러한 추정치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업은 최적의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 이러한 영향에 확률 가중치를 둘 수 있습니다.

파리협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논의는 FAQ 2를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기업이 파리 협정에 대해 공시할 때 파리 협정이 기업에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맥락과 그 의미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FAQ 2 - 'Paris Aligned' 가정은 IFRS에 따른 회사의 재무 보고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합니까?

광범위하게 말해서 파리 협정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인식과 제거, 측정 및 공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 기준에 따라 인식, 제거 및 측정 방법이 다릅니다. 파리협정에 대한 국가의 약속으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과도기적 기후 영향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In Depth의 다른 섹션 전반에 걸쳐 좀더 상세하게 공시를 포함한 특정 항목에 대한 과도기적 기후 관련 위험의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각 섹션을 고려할 때 'Paris Aligned' 가정의 요구사항은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의 모든 입법 정책 변경 및 경제적 결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 FAQ 3 - 기업은 비재무 보고(예: 지속 가능성 보고서)와 재무제표 간의 가정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합니까?

예. 기업은 IFRS를 준수하기 위해 그러한 일관성이 필요한 주요 가정에 대한 재무 및 비재무 보고 간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기업에 대한 파리협정의 영향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IFRS 기준이 측정에 사용되는 최선의 추정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재무 보고에 사용된 추정치와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공개된 추정치 간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재무 보고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이 있는 경우(또는 예를 들어 기업이 시장 참여자의 가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그러한 항목이 재무 보고에 다른 기준으로 반영된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3. 금융상품

#### 3.1 금융상품: 그린론(Green Loans) 회계

그린론(또는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은 이자율이 특정 ESG 지표에 연동되는 즉, 계약상의 현금흐름이 ESG 지표나 측정치에 따라 달라지는 채무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측정치는 배출 기준의 준수 정도, 에너지 효율 지표, 또는 두 개 이상의 친환경 측정치의 결합일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이러한 친환경 측정치와 관련된 채무자의 성과의 변동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그린론은 대여자과 채무자 각각에 회계적 영향이 있습니다. 하기의 이슈를 검토할 때 기업이 공시하는 비재무정보와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상품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영향이 미미한지를 평가할 때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비재무정보와의 일관성이 요구됩니다.

그린론의 조건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IFRS 9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평가하는 데 많은 판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에 대한, 특히 대여자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기준의 실무 적용에 있어서 지속적인 진전이 있는 상황입니다.

## 대여자의 회계처리

대여자의 관점에서 '그린론'을 회계처리하는 이슈는 이러한 상품의 약정상 지급액이 '원금과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일반적으로 'SPPI 테스트'라고 함)인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출채권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SPPI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출채권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합니다.

### PwC 지침:

- [FAQ 42.41.1 -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 또는 '녹색 변동성'이 있는 대출에 대한 SPPI 평가](#)

## 채무자의 회계처리

그린론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차입금의 녹색 변동성(정해진 환경평가 목표의 달성에 따른 채무자의 성과 변동을 반영한 이자율의 정기적 변동) 특성이 내재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와 만약 해당한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인 부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PwC 지침:

- [FAQ 42.121.2 - '녹색 변동성'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화는 어떻게 반영해야 합니까?](#)
- [FAQ 41.43.2 - '녹색 변동성' 특성을 분리해야 합니까?](#)

## 3.2 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

기후 변화는 금융자산 신용손실과 관련한 대여자의 익스포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FRS 9 의 기대신용손실('ECL') 모형에서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ECL 의 계산에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후 변화는 대여자들이 ECL 을 추정하기 위해 만든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채무자나 채무자 집단에 대한 위험 등급이나 부도율('P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채권의 스테이지(stage) 간 이동을 야기할 것입니다.

채무자는 궁극적으로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물리적 위험, 규제 위험 및 평판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출에 담보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접근 불가능해지거나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담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CL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의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리적 위험(예: 악천후 사건의 발생률 증가로 인한 물리적 자산의 파괴 또는 일시적 붕괴)과 전환 위험(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동에 따른 진행 또는 대체)을 별도로 고려함.
- 기간에 유의함 - 변화가 빠르게 발생하고 있어, 단기 익스포저보다 장기 익스포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 - 각각의 포트폴리오는 기간, 산업, 지역 등에 따라 위험 익스포저가 다를 것이며, 많은 경우 취약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집단적 평가만 가능할 것임.
- 시장 신용스프레드, 기대채무불이행 빈도 및 그 밖의 요소를 포함하는 모형의 투입변수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미 고려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중으로 위험이 계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보험, 보증, 정부 보조금(또는 기타 지급 및 정책)과 같은 다른 약정과 그러한 약정의 구조, 보장 제공자가 ESG 리스크에 대해 고려하는(그리고 대응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타 회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함.

ECL 고려사항은 은행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에 자금을 대여한 기업에게도 중요합니다. ECL 측정시 ESG 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하기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뒷받침 가능한 정보:

어떤 정보가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특히 기후 변화 위험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판단이 개입된다는 사실이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려 대상 금융상품의 대상 기간은 어떤 정보가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데이터, 특히 장기간의 데이터가 기후 변화로 인한 추정 미래 상황을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wC 지침:**

- [FAQ 45.66.2 은 - 기후 변화와 ECL 의 맥락에서 '합리적이고 뒷받침 가능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 [FAQ 45.63.1 – 미래 전망 정보구분](#)
- [FAQ 45.64.1 – 모델링 시점 이후에 이용가능한 정보](#)

집합 및 개별 평가:

기후 관련 위험의 영향을 받는 산업이 있고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영향을 받을 구체적인 차주를 아직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위험이 ECL 추정치에 반영되도록 집합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품 수준의 ECL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오버레이 조정(overlay adjustment) 또는 사후 모델 조정(post model adjustment)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동질적으로 간주하였던 그룹을 기후 관련 위험이 다른 영향을 유발하는 하위 그룹으로 세분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PwC 지침:**

- [FAQ 45.42.1 - '하향식'\(top-down\) versus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 판단:

IFRS 9 문단 B5.5.17 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SICR)을 나타내는 여러 요소를 열거합니다. ESG 가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PwC 지침:**

- [FAQ 45.31.2 - 신용 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다중 경제 시나리오(multiple economic scenarios):** 기후 관련 위험과 관련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예상되더라도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ECL 모델에서 고려해야 하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다양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가 측정에 고려되는지 여부 및 기존 시나리오에 의해 적절히 대표되는지 여부
- 기후 변화 위험과 예측 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을 적절히 포함하기 위해 더 많은 시나리오가 필요한지 여부

기후 변화 요인을 포함할 때, 특히 다른 비선형성을 도입하는 경우 시나리오 가중치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PwC 지침:**

- [FAQ 45.42.1 - '하향식'\(top-down\) versus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
- [FAQ 45.72.4 – ECL 을 측정할 때 얼마나 많은 미래 전망 거시 경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합니까?](#)
- [FAQ 45.72.5 – 다중 미래 전망 거시 경제 시나리오에서 가중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전체기간 ECL 의 인식 시기:** 기후 변화로 인한 신용위험의 변화가 12 개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12 개월 PD 만을 기준으로 SICR 을 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거시경제적 요인이나 기타 신용관련 요소의 변동이 향후 12 개월 동안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이 아직 전체기간 PD 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대신 정성적인 지표에 근거하여 스테이지 구분 목적으로 따로 반영된 경우에는 스테이지 구분에 12 개월 PD 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ECL 계산에 적용된 PD 가 적절한 조정 없이 과소 기재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PwC 지침:**

- [FAQ 45.27.1 – 12 개월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의 변동을 전체기간 채무불이행 위험의 변동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평가 및 재평가](#)

**3.3 금융 상품: 공시**

IFRS 7에서는 특히 위험의 특성과 정도, 그리고 기업이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험의 집중에 관한 공시와 관련하여 기업은 기후 위험을 고려하도록 접근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예를 들어 특정 도시가 특히 영향을 받는 도시나 지방/주 정부 정보 공시)의 더 높아진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지리적 집중을 더 세분화하거나 또는 산업 부문(탄소 집약도에 기초한 산업 제품 부문에 대한 익스포저를 보다 정확하게 세분화하는 것과 같은)을 더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또한 시장 위험(예를 들어 기후 관련 위험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위험에 대하여 민감도 공시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위험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익스포저가 더 유의적이 되면 채무의 계약 조건 준수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공시는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탄소집약 산업에서 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 조달 여력이 감소하는 것도 기업이 다루고 공시해야 할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PwC 지침:**

- [FAQ 47.92.1 – 위험 집중의 예는 무엇입니까?](#)
- [FAQ 47.104.1 – 신용 위험 익스포저 및 유의한 신용 위험 집중을 어떻게 공시할 수 있습니까?](#)
- [FAQ 47.108.8 – 만기 분석: 고정되지 않은 현금흐름은 어떻게 측정해야 합니까?](#)
- [FAQ 47.111.1 – 민감도 공시는 어떤 수준에서 통합하여 공시되어야 합니까?](#)

**3.4 공정가치 측정**

시장참여자의 관점에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가정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이용되는 모든 경우 공정가치의 측정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장참여자의 관점이 이미 적절하게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예: 광업이나 농업 관련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의 공시 주가). 그러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가치평가모형은 평가되는 특정 항목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는 평가도 기후 관련 위험 요소를 감안하여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은 임대수익, 공실률, 보험비용 등의 가정에 대한 기후 영향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은 사업결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충당부채, 고객관계, 재고자산, 브랜드 및 상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나 과일을 목적으로 재배되는 나무와 같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는 수익과 비용 측면의 변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식생활 선호도의 변화와 저탄소 제품으로의 전환은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물리적 위험(폭풍우 등)으로 인한 예상원가 변동과 투입원가(물이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요금) 변동이 고려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IFRS 13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와 유의적인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가 있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라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측정치의 민감도 설명을 요구합니다.

**PwC 지침:**

- [FAQ 5.28.1 – 가상의 시장 참가자 결정](#)
- [FAQ 5.30.2 – 자산 사용 제한의 영향](#)
- [EX 5.34.1 – 비금융자산의 원가와 최고 최선의 사용](#)
- [EX 5.34.2 – '최고 최선의 사용' 접근법](#)
- [FAQ 5.79.1 – 유의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에 수준 3의 공정 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 [EX 5.116.1 – 유형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에 대한 지침](#)
- [FAQ 5.139.1 – 생물자산에 대한 시장에 근거한 평가 기법](#)
- [FAQ 5.139.2 – 시장에 근거한 가격이나 가치가 없는 경우의 공정 가치](#)

### 3.5 보험 계약

기후 변화는 보험계약의 측정에 사용되는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관련 사건은 극단적인 기상 사건(홍수 및 화재 등)과 관련된 보험 사건의 빈도 또는 규모를 증가시키거나 발생 시기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업 중단, 재산 손해 또는 상해 관련 보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후와 관련된 변화에는 평균 기온 상승과 같은 만성적인 영향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영향은 질병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거나 사망률을 높일 수 있으며 사망이나 장기 질환에 대한 보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보험부채의 측정에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며, 그러한 가정에 따른 유의적인 판단과 그 판단의 변동을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또한 기후 관련 위험을 위험 익스포저, 위험의 집중, 위험 관리 방법 및 위험 변수 변동의 영향을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4. 비금융 자산 및 부채

### 4.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손상관련 고려 사항

기후 관련 위험은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어 손상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생산 공장이 손상되었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법안의 도입은 기업이 제품 라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관련된 자산의 손상 검사 필요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환경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평판의 손상 및 고객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브랜드, 상표 및 기타 무형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설정한 자발적인 환경 관련 약속 - 예를 들어, 제품 라인의 중단 또는 탈 탄소화 영업의 약속 또한 손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PwC 지침:**

- [EX 24.12.2 – 손상 징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는 추세](#)

**사용가치("ViU")모델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ViU 모델에서 미래현금흐름은 현재 상태의 자산에 대해 추정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 변화의 영향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수익에 대한 조정 또는 기업의 원가 기반에 대한 변경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에 대한 변화의 시기는 국가 및 산업간에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예측은:

- 고객 행동이 바뀌면 감소할 수 있습니다(예: 기존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더욱 친환경적인 제품

및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여 매출 창출 및 운영 능력 또는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더욱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증가할 수 있습니다<sup>1</sup>; 또는
- 기업이 고객에게 비용 증가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비용 기반은 다음의 경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더욱 친환경적인(아마도 더 비싼) 투입 요소들을 조달하도록 강제하거나 강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목표가 존재하는 경우;
- 추가 탄소세 또는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예: 기업 스스로 친환경 목표를 설정하거나 법률을 통해 부과되는 경우 - 전환 위험);
- 보험료 상승을 발생시키는 영업지역의 물리적 위험으로 인해(예: 홍수 위험);
- 영업지역의 물리적 위험(예: 홍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유지 관리 및 수리 비용으로 인해;
- 상품(commodity)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예: 화석 연료를 억제하는 정부 개입이나 기타 시장 요인 또는 환경을 훼손하는 상품으로 인한); 또는
- 특정 자산의 용도 변경 원가로 인해 - 전환 위험.

이는 모두 고려해야 할 잠재적인 변경 사항이지만 ViU 평가를 준비할 목적으로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ViU 모델은 기업이 구조조정의 효익, 자산의 성능 향상을 위한 투자 및 개선이 고려될 수 있는 시기에 엄격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효익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한 후에만 ViU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성능 향상의 경우 관련 효익은 기업이 관련 지출을 발생시키기 시작한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PwC 지침:

- [EX 24.79.1 – ViU 모델에서 계획된 미래 구조조정의 고려](#)
- [FAQ 24.43.3 – 복구의무는 ViU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FAQ 24.84.1 – 기업은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결정할 때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고려하는가?](#)

**현금흐름 예측 기간의 길이 및 잔존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는 우선 순위로 탈 탄소화를 삼고 있는 국가들에 위치한 자산 또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자산에 특히 관련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용가치에 대한 추정에는 경영진이 승인한 예산에 기초해야 하며, IAS 36에 따르면 이는 일반적으로 5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업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3년~5년의 기간 후에 더 뚜렷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의 영향이 잔존가치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특히 장래의 개선 및 성능 향상 원가 또는 미래 구조조정에 대해 영구 현금흐름에 중요한 조정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사용가치 계산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연도의 현금흐름 추정치가 잔존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데 이용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연도의 현금흐름은 사업의 발전 단계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겪어야만 할 기후 변화의 전환과 관련한 안정적인 상태를 포함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기후 변화 전환을 둘러싼 전략적 조치는 경영진이 승인한 예산기간이 끝날 때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마지막 해에도 아직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의 잔존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대안은 잔존가치를 둘 이상의 구성 요소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단계에서 증기적으로 특정 기후 관련 목표로 전환할 때 사업을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 증가된 영업 현금 유출액(즉, 계획된 개선, 향상 또는 구조조정은 무시)을 반영하며, 다른 구성 요소는 기후 관련 전환 지출이 이루어진

<sup>1</sup> 그러나 FVLCD 모델을 적용하는지 또는 ViU 모델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성능 향상 및 구조조정의 현금유출액과 관련된 유리한 현금유입액 및 원가 절감의 효과가 현금흐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FVLCD 모델은 시장참여자 입장의 모델이고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효과를 고려할 것인가에 따라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에 반해 ViU 모델은 자산의 현재 상태를 반영해야 하므로 성능 향상의 현금흐름과 효익은 해당 원가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만 반영될 것입니다. 유사하게 구조조정의 효과도 ViU 모델에서는 관련 총당부채가 IAS 37에 따라 인식되는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후의 영구적인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해당 지역이 점점 더 부적합해지거나(예: 홍수 위험 또는 물 부족 지역)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정부 법률로 인해 기존 지역에서의 영업이 특정 시점을 넘어서서는 존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추정 기간에 제약이 생길 것입니다.

장기 성장률은 잔존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손상 모델은 장기 인플레이션율로 양(+)<sup>2</sup>의 성장률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이 기후 친화적인 제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그러한 제품 및 프로세스(현재 상태의 자산에 기초한)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 성장률은 "0"이거나 "음(-)"일 수 있으며, 양(+)<sup>2</sup>의 성장률은 정당화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 장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은 변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지지 가능한 가정의 의미:** 예를 들어 보험료가 아직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물 가격이 아직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특정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지지 가능한 가정이라면, 그러한 가정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미래 추정치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세금 계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경이 이미 최소한 실질적으로 제정된 경우여야만 하는 세율 변경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가정이 합리적이고 지지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탄소세는 IAS 12의 범위에 속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하기 위해 이에 관한 법률이 제정(또는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한 가정은 합리적이고 지지 가능한 추정치기만 하면 됩니다.

기후 관련 법률과 규정을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규정은 비교적 빠르게 진화할 수 있으며, 지역 간에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 외(예: 회사의 ESG report 또는 Integrated report)에 공표된 내용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현금흐름 예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또한 현재 상태에서의 기존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탄소 중립 제품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에 대한 가정을 예측에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유사한 기술 및 투자가 경쟁업체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할인율:** 기후 관련 위험이 모델에 다른 위험 요소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자본 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정립된 방법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관련 규정이 다른 시점에 또는 다른 수준의 엄격함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고유한 불확실성을 처리하기 위해 손상 검사를 수행할 때 여러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나리오와 관련된 잠재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가장 좋은 실무적 접근 방법은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보다 현금흐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동일한 위험이 할인율과 현금흐름 모두에서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기후 관련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할인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채 또는 자본을 통한 금융 제공자들이 더 위험한 투자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sup>2</sup>. 극단적인 경우, 부채 조달은 특정 산업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며 WACC에 대한 입력값인 부채/자본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wC 지침:**

- [FAQ 24.107.2 –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할인율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
- [EX 24.105.2 – 특정 위험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할인율](#)

**처분 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의 사용:** ViU 테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제약으로 손상 검사를 위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FVLCD')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sup>2</sup> 또한, IFRS 13의 적용사례 Example 11을 참조하십시오. 사례는 현재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데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 현금흐름이 예상현금흐름과 다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시장위험프리미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참여자가 기후관련 위험과 같이 분산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요구할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의 개념은 기준서에 의해 설명가능합니다.

사용하는 경우 평가 요소는 시장 참여자의 가정에 근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간행물의 공정 가치 측정 섹션 (섹션 3.4)의 추가 논의를 참조하십시오.

**재무제표 공시와 서술적 보고(narrative reporting) 간의 상호작용:** 손상 관련 공시는 기후 관련 영향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회사의 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것이 회수가가능 산정에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해 손상 모델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기업은 재무제표 공시에 반영해야 하는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에 기초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서술적 보고의 일부로 기후 시나리오를 논의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파리 협정 또는 '넷 제로(net zero)' 목표치 또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의 보고 요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나리오 분석은 IAS 1 또는 IAS 36에서 요구하는 공시와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한 공시의 전제는 IAS 36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정의 변화가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IAS 36에 따라 민감도 분석이 요구됩니다. 이는 기후 변화에 관한 가정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불리한 변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IAS 36의 민감도 공시는 추정 기간(즉, 잔존가치가 포함된다면 영구 기간)에 대해 요구됩니다.

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IAS 36에 사용된 가정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서술적 보고에 사용된 가정과 어떻게 대응되는지의 설명 필요성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CFD는 비록 이것이 회사의 최선의 추정치 또는 시장 참여자의 가정과 일치하는 가정이 아닐 수 있더라도 온도 상승에 대한 1.5° 또는 2.0° 제한을 추적하는 시나리오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ISA 720에 따라 기업의 연차 보고서에 포함된 기후 보고와 같은 기타 정보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지역의 규제 기관들은 기업이 사용된 가정간의 불일치를 설명하고 조정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손상 외에도 기후 변화의 결과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영향으로 인해 자산이 조기에 노후화되거나, 자산 사용에 법적 제한이 적용되거나, 또는 자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 자연적인 기후 현상이나 정부 조치로 인해 자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통제를 영구히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IAS 16은 자산의 내용연수가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할 것을 요구하며,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이러한 추정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기업은 내용연수와 관련된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이 공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여러 개의 잠재적인 결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중 일부가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확률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내용연수를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경우).

#### **PwC 지침:**

- [EX 21.33.2 –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관련 EU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
- [EX 22.100.1 – 추정 내용연수 변경](#)
- [EX 22.100.2 – 취득한 고정 자산의 내용 연수 감소](#)
- [FAQ 22.100.3 - 기후 관련 요인이 자산의 내용 연수와 잔존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EX 22.101.1 – 자산의 잔존 가치 수정](#)

## **4.2 기타 비금융자산: 회수가가능성 관련 고려사항**

### **재고자산**

재고자산과 같은 비금융 자산의 회수 가능성은 기후 관련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재고자산은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IAS 2는 기업이 그러한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문은 자산의 시장 가격 변동성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품(commodity)에 대한 수요 패턴의 변화의 결과일 수 있으며, 해당 재고자산을 손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특정 자산의 사용 또는 생산이 중단되어 해당 자산의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연 엔진의 특정 모델은 더 이상 배기 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생산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엔진을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을 진부화시킬 수 있습니다.

**PwC 지침:**

- [FAQ 25.33.1 - 인증에 따라 제품을 '녹색' 또는 재생 가능한 물질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녹색' 또는 재생 가능한 물질을 기업은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 [FAQ 25.21.2\(illustration #3\) -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벤트\(예: 글로벌 위기\)의 결과로 재고자산 자본화를 위해 '정상 조업도'와 비정상적인 원가를 결정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가?](#)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도 다른 비금융자산의 손상을 고려할 때 위에서 논의한 것과 유사한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기업이 미래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인식됩니다. 기후 변화는 미래 과세소득에 대한 회사의 추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게 하거나 이전에 인식된 것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평가와 비금융 자산 손상검사 간의 가정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4.3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재무상태표의 부채 측면에서 기후 관련 위험은 충당부채 및 부담금의 인식, 측정 및 공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 충당부채와 환경 또는 복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취한 조치나 진술은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것이 아니라도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의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기업 전략의 변경은 복구 의무의 시기(따라서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후처리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전략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는 중기적으로 당초 예상보다 빨리 공장을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 공장으로 교체해야만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의 결과, 회사는 충당부채를 처음 인식할 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공장을 폐쇄하기 때문에 공장 폐쇄에 대한 예상 현금흐름의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높은 생산 및 기타 투입 비용으로 인해 손실부담계약의 인식 및 측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실질적으로 제정'된 경우에만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요건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이는 법률이 실제로 통과되고 법률이 되어 회사의 조치가 필요할 때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의 손상(4.1 에서 논의)과 같은 다른 추정치를 측정할 때 예상되는 법률을 고려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PwC 지침:**

- [FAQ 16.13.1 - 대차대조표일 직후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로 인해 충당부채의 의무가 발생합니까?](#)

**질문**

기말 이전에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화를 요구하는 현행법이 없으며 기업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액을 시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회계기간 종료 직후 통과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률은 (오염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사건에 따른 현재의무를 생성할 것입니다. 대차대조표일에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합니까?

**답변**

경영진은 대차대조표일에 새 법률이 초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지(virtually certain)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이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의무발생사건이 있으며 현재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잠재적인 의무발생사건(토지의 오염)은 발생하였으나 법으로 집행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FAQ 16.19.1 – 경영진은 현재의무의 존재 여부를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 [FAQ 16.76.1 – WEEE 의무란 무엇입니까?](#)
- [EX 16.85.7 – 폐기 및 사후처리 원가에 대한 인식 기준 적용](#)
- [EX 16.85.8 – 환경부채에 대한 인식 기준 적용](#)
- [FAQ 22.28.1 – 사후처리 총당부채 금액 중 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사후처리의무가 발생할 때 자산으로 자본화 하는 총당부채의 금액을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산의 수명은 30 년이며 법률 변경으로 인해 10 년 후에 설치된 자산의 폐기와 관련하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총당부채는 C900,000 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총당부채의 금액 중 얼마를 자산으로 자본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900,000 전체가 자산의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 되고, 남은 20 년의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 됩니다(회수가가능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산의 내용연수 중 1/3 이 경과하였으므로 총당부채 중 C600,000 만 자본화 되어 나머지 20 년의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 됩니다. 나머지 총당부채 금액(C300,000)은 처음부터 의무가 있었다면 처음 10 년동안 감가상각으로 인식되었을 금액이므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IAS 16 이나 IFRIC 1 에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모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기에 법률의 변경이 있고 새로운 개발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였다면, 첫 번째 접근 방식이 그 특정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 [EX 22.28.2 –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 발생하는 폐기원가](#)

사후처리의무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에 명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피해에 관한 법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당부채로 IAS 37 에 따른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원가는 자산의 설치, 건설 또는 취득과 관련된 한도 내에서 자산의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 됩니다. 재고를 생산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인한 복구 의무는 해당 재고의 원가로 반영되며, 해당 자산으로 자본화 되지 않습니다. 임차부동산의 마모와 관련하여 임차 종료 시 복구해야 하는 의무는 자산을 사용에 따른 원가이므로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EX 22.62.1 – 안전 또는 환경 규제 장비의 최초 원가](#)

어떤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다른 자산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게 하는데 필요하여 취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을 보장하거나 환경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자산입니다. 이는 다른 자산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해당 자산과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해서는 합산된 장부금액이 합산된 회수가가능액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손상이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화학물질 처리 프로세스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 물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공장 개선 원가는 그것이 없이는 기업이 화학 물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없으므로, 관련 화학 공장과 합하여 회수가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본화 됩니다.

## 5. 배출권 거래 제도

배출권 거래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합니다. 가장 큰 제도는 유럽연합에 있으며, 다양한 제도가 전 세계에 존재하고 때로는 한 국가에서 주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예: 미국 및 캐나다).

이러한 제도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다루고 있으며(일부는 다른 종류의 배출을 포함), 탄소 중립 또는 탄소 네거티브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촉진하여 배출 감소를 장려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어떤 사업은 좀 더 탄소 집약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서 가능한 한 배출량을 줄이거나 배출량을 상쇄하는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상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기간이 시작하는 시점에 제한된 수량의 허용량을 할당할 것을 포함하고, 기업의 준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생성된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 있는 충분한 허용량을 보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부 제도는 기업이 추가 배출권(무상 할당 외에)을 구매하거나 배출 감축으로 인해 생성된 잉여 배출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업의 배출량이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계속 존재해 왔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 탄소배출권 가격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기업과 사업의 일부로 판매할 배출권을 생성하는 기업 모두에게 이러한 제도가 기업의 성과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더 많은 기업이 탄소배출권 생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에너지를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존 에너지 기업이 풍력 또는 태양 에너지로 확장했거나 탄소 포집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의 영향은 다양한 사업의 경제 및 투자 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물론 많은 기업이 ESG 공시의 일환으로 탄소배출량 보고에 더 집중하고 자체 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에 의해 생성된 탄소배출권이 제도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는 특정한 회계기준은 없습니다. IFRIC 3은 이 분야의 회계를 다루고자 하였지만 2005년에 철회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이 금전적 대가 없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받는 경우 오염물질 가격결정 제도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성격에 대하여 다소 복잡한 회계 개념상의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그리고, 인식한다면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IFRIC 3의 철회는 IAS 8에 따라 이러한 제도의 회계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회계모형이 있으며, 이 분야는 실무적으로 유의적인 다양성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또한 배출권의 선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으며, 배출권에 대한 선도 매입 또는 매도 계약이 IFRS 9 '금융상품'의 범위에 속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IFRS 9은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차액결제 계약)에 적용됩니다. 배출권 매매 계약이 그러한 계약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는 IFRS 9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자가 사용' 면제라고 합니다.

차액결제 계약이 '자가 사용'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기업이 '자가 사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IFRS 9에서 제공하는 제한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차액결제 계약은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보고됩니다.

그러나 FVPL 회계처리에 대한 대안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 때 현금흐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려면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적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험회피관계의 시작 시점에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차액결제 계약이 아닌 계약은 IFRS 9의 적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도 여전히 내재 파생상품의 존재 여부는 검토해야 합니다.

#### PwC 지침:

- [EX 16.85.9 - 배출 의무에 인식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논의](#)
- [FAQ 33.21.3 - 배출권 거래 제도가 산림의 공정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PwC 간행물 - 배출권 거래 시스템: 앞으로의 기회](#)

## 6. 계속기업 가정을 포함한 판단 및 가정에 대한 공시

기후 변화는 미래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가정하고 그러한 시나리오가 실행될 가능성은 기업이 보고하는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AS 1 '재무제표 표시'에는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을 공시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정이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IAS 1은 그러한 가정과 자산과 부채의 성격과 장부금액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합니다. 기업은 또한 가정과 추정치에 대한 장부금액의

민감도를 공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문제가 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생성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유의적인 위험이 있다면 해당 가정을 공시하고 재무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잠재적 기후 시나리오의 영향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가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설명합니다. 결정적으로 기업의 재무보고에 적용된 가정은 ESG 공시와 같이 다른 곳에서 설명된 가정 및 분석과 일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IAS 1 은 중요한 정보가 모두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IAS 1 문단 112 는 기업이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았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IAS 1 의 이러한 요구사항은 재무상태나 재무 성과가 기후 관련 문제에 특히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IAS 1 은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 개월 기간(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합니다. 기후 관련 문제가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생성하는 경우 IAS 1 문단 25 에 따라 공시가 요구됩니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 기준으로 계속 작성되더라도 불확실성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다음을 공시해야 합니다.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의문을 야기하는 주요 사건이나 상황과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경영진의 계획을 적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자산을 실현하고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음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경영진이 계속기업 가정과 관련하여 공시를 요구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은 없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는데 유의적인 판단(예: 계획된 완화의 실현 가능성 및 유효성에 관한)이 수반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 IAS 1 은 그러한 판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PwC 지침:**

- [FAQ 4.26.1 –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공시해야 합니까?](#)
- [FAQ 4.157.1 –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FAQ 4.150.1 – 어떤 회계 정책을 공시해야 합니까?](#)

PwC는 IASB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In brief'와 상세한 실무적용이슈를 다루는 'In depth'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근 제.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이를 번역한 것으로서 각 사례는 결정 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그 이후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2021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